

“북한 주민 신음 들으시는 하나님, 복음통일 이루실 것”

‘제2회 남북평화통일기도회 및 세미나’, 23일 개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통일의 역사
한국교회, 복음 전하는 사명 망각해선 안 돼
권성동 의원 “정치, 갈등 조정 위해 소통해야”

미래약속포럼-대한기독교노인회가 23일 부산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제2회 남북평화통일기도회 및 대한민국 정치 발전과 소통의 원리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달 2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첫 기도회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행사는 남북 간 위기 국면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 및 복음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한국교회가 다시 예배의 열정과 영성을 회복해 국가와 민족의 희망이 될 것을 염원하고자 마련됐다. 임병철 목사(대한기독교노인회 대표)가 사회를 본 1부 남북평화통일기도회에선 장상홍 장로(대한기독교노인회 이사장, 미래약속포럼 상임부회장)가 환영사를 전했다. 임석웅 목사(기성 직전 총회장)가 대표기도를 드렸다. 장상홍 장로는 환영사에서 “북한 정권은 곧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고통 가운데 있는 북한 주민들의 신음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매일 전국을 다니면서 남북평화통일기도회를 갖고자 한다. 남북이 평화롭게 복음으로 통일이 되게 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어주시길”이라고 했다.

이어 이병수 박사(전 고신대 총장)가 축사했고 정서영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사도행전 1장 6-11절 본문, “복음증거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먼저 축사한 이병수 박사는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가 꼭 필요한 이 시점에 이러한 자리가 마련되어 매우 뜻깊다”며 “북한의 주민들이 통일을 갈망하고 있다고 한다. 그들이 갈망하고 오늘날 우리가 기도한다면 통일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설교한 정서영 목사는 “한국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다. 그런데 문제가 많고 병들어 있다. 현재 사람들의 평균수명이 늘어났는데 만약 늘지 않았다면 기독교 인구가 감소했을 것”이라며 “이제는 다시 기약해야 한다. 인본주의와 자유주의신학에서 돌아서야 한다”고 했다. 정 목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다. 한국교회가 이것을 망각하면 아무 것도 아니게 된다”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하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교회, 다시 국가-민족의 희망 될 것을 염원하며’ 미래약속포럼과 대한기독교노인회가 23일 부산에서 ‘제2회 남북평화통일 기도회 및 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주요 참석자들이 행사를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장상홍 장로



정서영 목사



임영문 목사



권성동 의원



남북평화통일기도회 및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도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이후 임영문 목사(미래약속포럼-대한기독교노인회 공동대표)가 한반도의 평화 및 복음통일을 위한 통성기도를 인도했다. 임 목사는 “아직 통일이 되지 않은 것은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연약함과 불충함과 죄 때문이오니 용서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 또한 그는 “북한의 신음하는 수많은 동포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통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일에 한국교회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

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 이어 2부 세미나에선 권성동 국회의원(국민의힘, 미래약속포럼 상임의장)이 ‘대한민국 정치 발전과 소통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권 의원은 “정치는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고,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건 소통”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성과로 △한미동맹 강화 △범지구적 확립 △물가관리 △원자력 산업 정상화 및 중흥을 꼽았다. 그러면서 “윤 정부의 이러한 정책 방향은 대체로 국민들이 호응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정책에 치중한 나머지 정부적 기능이 부족했다. 결국 이런 문제는 소통의 부족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소통은 비단 정치 영역에서만 아니라 모든 조직에 필요한 것”이라며 영국의 정치인이었던 윌리엄 월버포스를 예로 들었다. 기독교인이었던 그는 당시 영국의 노예무역을 폐지하고자 했다. 국가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노예무역을 폐지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월버포스는 국민들을 설득하며 오랜 기간 노력했다고 한다. 결국 그는 폐지를 이끌어 냈다고. 권 의원은 “월버포스가 많은 반대에 불구하고 끝내 노예무역을 폐지시킬 수 있었던 건 그가 신앙의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국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했기 때문”이라며 “이것이 바로 정치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닐까 한다”고 했다. 한편, 미래약속포럼과 대한기독교노인회는 앞으로 매월 이 기도회와 세미나를 전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것이 한국교회와 우리 사회에 복음통일에 대한 염원을 불러일으키고, 보다 적극적으로 이를 위해 행동하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진영 기자

“고양시에 신천지 종교시설 안 돼... 행정소송 적극 대응을”

고양시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 23일 ‘이단 및 사이버 시설 반대집회’ 개최

고양시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상임총괄위원장 박한수 목사, 이하 고법위)가 23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문화광장에서

‘이단 및 사이버 시설 반대집회’를 갖고 성명을 발표했다. 고법위는 성명에서 “지난 코로나19 유행 상황 속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심각하게 침해했던 신천지는 이후에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포교 활동으로 사회적으로 전국 곳곳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사이버 종교”라고 했다. 이어 “신천지는 2018년 고양시 관내 (구)엘지물류센터에 신천지 관련자 이름으로 매입한 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사이버 집단주의의 심화는 건축물에 대한 고양시민들의 반대와 고양시 건축심의과정에서도 최종

허가를 받지 못해 용도변경은 무산되었다”고 했다. 고법위는 “그러나 5년 후 2023년 6월 신천지 측은 고양시 일산동구청에 종교 시설 용도변경을 신청했고 두 달 뒤 8월 공무원들의 휴가기간 동안 공무원 1인이 갑작스레 종교시설 허가를 내주는 어이없는 행정오류가 벌어졌다”고 했다. 이들은 “분명 5년 전 사이버종교가 언론 루틴 점을 인지하고 불허했던 사안을 공무원이 파악하고 있지 못한 점에 대해 고양시는 과실을 인정하고 또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하는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한 결정을 위해 신천지에 허가

했던 종교시설 용도변경 건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적극 취소를 했다”고 했다. 이를 적극 지지한다는 고법위는 “그러나 신천지는 고양시가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공익상 필요에 의한 결정을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불복하며 대형 로펌을 앞세워 고양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섰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천지가 제기한 이번 행정소송을 고양시민을 향한 주요 소송으로 인식하고 고양시가 적극 대응할 것을 촉구하며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함께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우리는 신천지로부터 나 자신과 가정, 그리고 지역 사회의 이웃을 보호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건강하게 만



고양시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 상임총괄위원장 박한수 목사(맨 앞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 등 집회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고법위

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며 “신천지의 반사회적이며, 반윤리적인 행위들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지역 사회와 주변 사람들에게 그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며,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또한 “신천지의 잘못된 행위와 포교들이 우리의 가정과 주변의 삶의 현장에 부

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그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며 “신천지의 반사회적이며, 반윤리적인 행위들로 인해 지역 사회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정부기관과 언론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대책을 마련하고, 그 대책을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진영 기자

“영혼 향한 사랑,
UCKG 부흥의 비결” >> 3면

문성모 “한국교회 성
가대 음악의 문제점” >> 22면

럭셔리 라이프의 새로운 미래
리버레이크 송파 강남 3구 환승역세권 APT

강남아파트 한강이 보이는 우리집!

4천 500만원으로 잠실을 누리다!

석촌역 10초!!

중도금 무이자 송파 랜드마크
청약 동장 無 35층 상향!

송파 5억 원대~
8·9호선 더블역세권! 황금입지!

리버레이크 송파 프리미엄 7가지

- ☑️ 석촌역 10초, 장성역 도보역세권
- ☑️ 롯데타워, 롯데백화점, 가락시장 생활인프라
- ☑️ 장성종합운동장, MICE복합개발
- ☑️ 현대 GBC, 강남권 송파 미래가치 핵심입지
- ☑️ 석촌호수, 올림픽공원, 한강시민공원 생활환경
- ☑️ 한강조망, 신강남의 중심
- ☑️ 주상복합 고품격 커뮤니티

40㎡ · 55㎡ 아파트 | 총 380세대

전화상담 후 광고지 지참 방문시 **홍삼세트 증정**

문의 02)588-1800